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5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1월 1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보수전장, 콘티넨탈
로비농성
돌입해

3년째 억지부리는 사업주들

2012년 보수전장과 콘티넨탈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당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 등 전국적으로 노조파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보수전장과 콘티넨탈 자본도 노조파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회 지도부 해고 및 징계, 조합원 회유와 협박, 임금차별 등이 벌어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회사 모두 창조건설팅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의도된 불법 노조파괴 혐의는 더 짙어졌다. 그러나 두 회사는 아직도 노조파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니들의 불법은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

보수전장 자본은 2015년 시작부터 교대제 개편을 통해 금속노조를 또다시 고립시키고 차별하려고 했지만 강고한 투쟁에 막혀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임금차별은 여전하다. 아직도 2012년 임금교섭부터 3년째 임금인상이 안되고 있다. 또 고등법원까지 승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콘티넨탈도 똑같다. 고등법원까지 승리한 2명의 해고자들에 대해 복직시키기는 커녕 시간만 계속 끌고 있다. 임금교섭도 2012년부터 막혀있다. 보수전장과 판박이다.

불법 부당해고 건은 물론이고 임금차별은 불법이라는 점은 사측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를 차별하고 고립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본에게 불법 따위는 문제도 아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해고자들을 현장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임금을 계속 차별하고 싶은 것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아무리 상식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못알아듣는 자본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보수전장 지회와 콘티넨탈지회는 각각 회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쌍둥이처럼 똑같은 노조파괴를 보여왔던 두 자본에게 두 지회가 로비농성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두 지회는 소수의 조합원들이 남아서 어렵게 싸워왔지만 한 번도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로비 농성도 강고하게 사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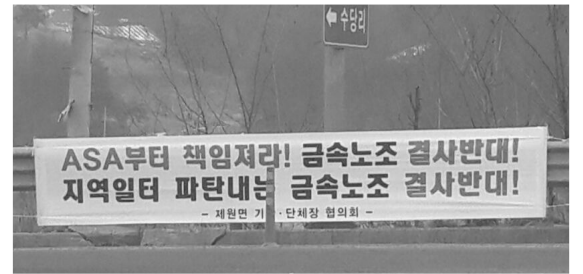
불법! 불법! 불법!
해고자 복직시키고! 임금차별 중단하라!

금산군 제원면장은 한국타이어 자본의 하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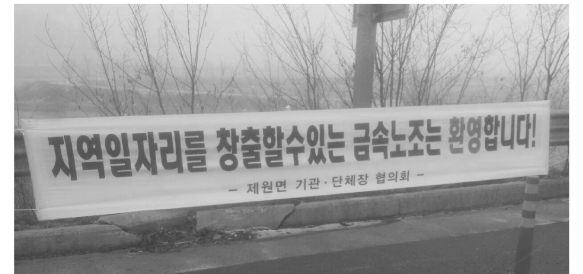
어용노조 53년의 역사를 깨고 민주노조를 설립한 한국타이어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14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위치한 금산군 제원면에 갑자기 이상한 현수막이 걸렸다. 제원면 기관·단체장 협의회 명의로 “ASA부터 책임져라! 금속노조 결사반대! 지역일터 파탄내는 금속노조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이다.

제원면 기관·단체장 협의회는 제원면장(5급 공무원)이 회장으로 있고,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장, 한국타이어 생산지원팀장까지 포함된 단체이다. 현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도 모자라, 한국타이어 자본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원면장은 한국타이어지회의 항의를 받고선 즉각 현수막을 내리고 금속노조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 내걸린 현수막은 말장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한 번 더 분노케 했다.

지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한국타이어 자본의 치졸한 작태임을 폭로할 예정이다. 지역 기관장들까지 돈으로 매수해 금속노조 탄압에 나선 거라면 한국타이어자본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제원면 기관 단체장 협의회가 내건 현수막>



<항의받고 다시 내건 현수막>

쌍차투쟁으로 신년 투쟁 선포한다!

금속노조가 201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선포식을 연다. 노조는 1월 24일(토) 14시 서울 도심에서 신년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금속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쌍차 범국민 대회까지 이어간다. 2015년 투쟁은 쌍차 투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13일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과 김정옥 사무국장이 평택공장 내 굴뚝에 올랐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4일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이 평택공장을 방문하면서 쌍용차지부와 만나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향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쌍용차는 최근 신차 ‘티볼리’를 출시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해고자 복직을 전제로 신차 ‘티볼리’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이 해고자 복직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매운동으로 변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여론이 심상치 않자 쌍용차 자본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비정규직은 늘리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리해고의 상정적인 쌍용차 투쟁을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올해 제대로 붙어볼 수 있을 것이다. 힘찬 투쟁선포식으로 2015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실망스러운 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2회전 격인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교섭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월16일 현대차지부 조합원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정비위원회 조합원 2인의 경우 취업규칙 상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근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하므로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옛 현대자동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에 적용하는 취업규칙에 15일 미만 근무자는 정기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상여금 지급 세칙이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현대차 상여금 지급 세칙에 지급 제외자 규정과 달리 ‘퇴직자는 실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상충하는 규정이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상여금 △하계휴가비 △유류비 △명절귀향비 △선물비 △단체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작년 7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제외한 5개 항목은 제외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jswcool@naver.com



<1.13 컨티넨탈지회 농성돌입 집회>



<1.13 컨티넨탈지회 농성돌입 집회>



<1.13 컨티넨탈지회 농성돌입 집회>